

시페퍼스, 시즌 최종전서 유종의 미 거둔다

15일 오후 4시 광주페퍼스타디움서 정관장과 맞대결

15승 20패 승점 44점...역대 최다승·승점 재정신 주목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시페퍼스가 시즌 최종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

시페퍼스는 15일 오후 4시 광주페퍼스타디움(영주체육관)에서 정관장 배구단과 진이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최종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시페퍼스는 역대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현재까지 15승 20패 승점 44점으로 리그 6위를 기록하며 구단 역대 최다승리와 최다승점을 경신했고, 최초로 리그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 2021-2022시즌(3승 28패 승점 11·리그 7위), 2022-2023시즌(5승 31패 승점 14·리그 7위), 2023-2024시즌(5승 31패 승점 17·리그 7위), 2024-2025시즌(11승 25패 승점 35·리그 7위)과는 확연히 다른 성과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올 시즌 1라운드에서는 4승 2패로 깜짝 활약을 펼쳤다. 한때 리그 공동 1위에도 자리했다. 하지만 2라운드(2승 4패)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3라운드 1승 5패, 4라운드 2승 4패를 기록하면서 거품이 꺼지는 듯했다.

5라운드에서는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다. 첫 경기 흥국생명전 패배 이후 '강호' 현대건설을 맞아 승리하며, 리그 1위 한국도로공사도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제압했다. 리그 선두를 다투는 팀을 연달아 제압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좋은 분위기를 탔다.

이후 5라운드 다섯 번째 경기에서는 기업은행을 잡고 12승 17패 승점 36점을 기록, 구단 역대 최다승과 승점 기록 모두를 갈아치웠다.

직후 경기에서는 정관장까지 잡아내면서 창단 이후 첫 최하위 탈출을 확정 짓기도 했다.

현재까지 6라운드에서 2승과 승점 6점을 추가한 시페퍼스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만든다는 각오다.

다만 부상 약제가 남아있다. 주포 조이가 최근 훈련 과정에서 발목을 다치면서 직전 경기엔 출전하지 못했다. 박정아와 박은서 또한 각각 무릎과 허벅지, 발등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의 최종 경기 출전 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맞붙을 상대는 리그 7위 정관장(8승 26패 승점 26).

정관장은 올 시즌 아시아쿼터 인쿠시를 영입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팀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시즌 막바지까지 11연패를 기록하면서 추락했다. 흥국생명전에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이후 최근 GS칼텍스를 꺾고 1승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여



진이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다섯 번째 경기에서 정관장을 꺾고 승리를 차지한 시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KOVO

전히 분위기는 좋지 않다.

더욱이 최근 시페퍼스는 정관장에게 강했다. 최근 3경기 동안 상대전적은 2승 1패. 리그 초반 고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페퍼스가 이번 경기에서 승수와 승점을 추가

한다 해도 순위 변화는 없다. 리그 종료까지 2경기 남겨둔 5위 기업은행(승점 51점)과의 격차가 크다. 그럼에도 역대 최고 승수·승점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울 기회다.

올 시즌 새 역사를 작성한 시페퍼스가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올러 3이닝 퍼펙트 콤비’ KIA, 시범경기 개막전 승



KIA타이거즈가 올 시즌 시범경기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KIA는 1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KBO 시범경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9-4로 승리했다.

이날은 올러, 양현종, 김시훈, 김범수, 정해영 등 마운드의 고른 기용으로 컨디션을 점검했다.

타선에서도 김호령의 2타수 2안타를 비롯한 장단 10안타의 활약이 나오면서 승리를 따냈다.

이날 KIA는 윤도현(2루수)-김호령(중견수)-카스트로(좌익수)-나성범(우익수)-김선민(지명타자)-오선우(1루수)-한준수(포수)-박민(3루수)-정현창(유격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로는 아담 올러가 나섰다. 총 40개의 공을 던진 그는 3이닝 5탈삼진 무실점으로 패투했다.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했고,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52km였다.

올러는 1회초 상대 선두타자를 삼진으로 처리했다. 후속타자 에레디아는 뜬공으로 잡아냈다. 상대 최정은 스트라이크아웃 이후 상대 포수 테그아웃으로 잡아내면서 삼자범퇴 이닝을 끝냈다.

2회초 역시 호투가 이어졌다. 상대 김재환 삼진 이후 고명준을 땅볼로 돌려세웠다. 한유섬을 상대로는 다시 한번 삼진을 만들면서 세 타석 만에 이닝을 마쳤다.

올러는 3회초에 또한 삼진 1개와 범타 2개로 무실점 이닝을 만들면서 투구를 마쳤다.

KIA는 4회초 양현종을 마운드에 올렸다. 양현종은 선두타자 박성현에게 볼넷을 내줬으나, 에레디아에게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아웃 카운트 2개를 늘렸다. 최정 안타 이후에는 김재환을 땅볼로 잡아내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4회말에는 빅이닝이 만들어졌다.

SSG와 홈경기...9-4 제압

김호령, 2타수 2안타 활약

선두타자 김호령이 중견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려냈다. 카스트로 뜬공 이후 타석에 오른 나성범은 2루타를 터뜨렸다.

이어 김선민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만루 상황.

오선우가 중전 안타를 뽑아내면서 김호령이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여기에 후속타자 한준수와 박민이 나란히 1타점을 만들었다.

찬스는 계속됐다. 타석을 이어받은 정현창은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2타점을 올렸다.

2사 만루에는 카스트로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렸고, 이어 김선민의 밀어내기 볼넷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8-0이 됐다.

양현종은 5회초에도 무실점에 성공한 뒤 6회초 위기를 맞았다.

볼넷 2개와 안타 1개를 내준 뒤 유격수 실책으로 1점을 헌납했다.

이어진 무사 만루에서는 상대 현원희의 희생 플레이, 김재환의 우전 안타로 2점을 추가로 허용했다. 결국 양현종 대신 김시훈이 등판했다.

김시훈은 고명준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내준 뒤 임근우를 땅볼로 처리하면서 이닝을 마무리 지었다.

KIA는 6회말 1점을 추가한 뒤 9회

까지 실점 없이 이닝을 막으면서 9-4 승리를 따냈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올러가 3이닝을 완벽하게 던져줬다. 스피드, 제구, 변화구의 움직임 등 나무랄 데 없는 투구였다”며 “타석에서는 김호령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때도 좋은 모습이었는 데,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해오고 있는 것 같다. 개막에 맞춰 지금의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투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잘해준 경기였다. 내일도 다양하게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1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KBO 시범경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KIA타이거즈 올러가 역투하고 있다. 사진제공=KIA타이거즈

광주FC, 전북 상대 시즌 첫 연습 ‘정조준’

내일 광주월드컵경기장서 전북전

1승 1무 리그 2위...신항무 등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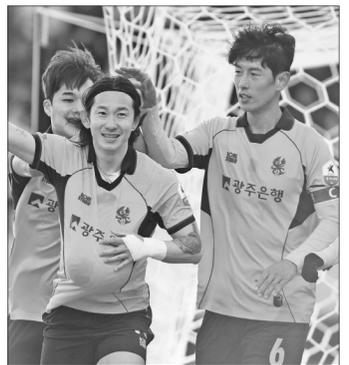
프로축구 광주FC가 전북현대를 상대로 시즌 첫 연습에 도전한다.

광주는 14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지난 7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2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3-2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첫 승을 올렸다. 최경록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신항무의 멀티골이 터졌고, 경기 종료 직전 김경민이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슈퍼세이버를 만들면서 그림 같은 승리를 확정 지었다.

젊은 선수와 베테랑의 조화도 돋보였다. 유스 출신 신인 센터백 공배현은 경기 초반 민상기의 부상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며 성공적인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베테랑 미드필더 주세종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선제공격 도움과 함께 광주 공격을 이끌었다. 광주는 개막 후 2경기 연속 무패(1승 1무 승점 4)로 리그 2위에 올라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인천 상대로 8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며 전북전을 앞두고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번 전북전은 지난 2025 코리아컵 결승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은다. 광주는 당시 연장 접전 끝에 첫 우승을 노렸지만, 아쉽게도 1-2로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이번 홈경기는 그 아쉬움을 씻을 기회다.

광주는 최근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5년 10월 25일 FC안양전 1-0 승리 이후 홈 4연승에 단 2실점밖에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상대를 높여 때트리고 있다. 특히 홈 4연승은 구단



지난 7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026 2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멀티골을 터트린 광주FC 신항무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통산 K리그1 홈 최다 연습 기록으로, 광주는 전북전 승리를 통해 해당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하겠다는 각오다.

상대 전북은 리그 개막 후 1무 1패로 다소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 시즌 더블 우승(리그·코리아컵)을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으로 모파를 비롯해 티아고, 이승우, 이도훈, 오베르단, 송범근 등 전 포지션에 걸쳐 리그 정상급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어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이정구 감독은 “실전에서 훈련의 80% 정도 보여준다면, 전북전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올 시즌 큰 변화를 맞이한 광주가 전북을 꺾고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시체육회, 생활체육광장 운영...안전·전문성 강화

전담 지도자 20명 위촉장 수여...5개 구 20개소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체육회가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광장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시체육회는 12일 오전 10시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생활체육광장 사업을 이끌어 갈 전담 지도자 2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장지도자는 생활체육 지도자,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초·중등 정교사(2급 이상)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운동 지도뿐 아니라 생활체육 정보 제공과 동호인 클럽 결성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자속적인 체육 활동 참여를 돕는다. 생활체육광장 사업은 1993년 대한체육회 기금 사

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33년째 맞는 대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체육 분야의 중점사업이다.

시체육회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동구(동명동 작은 공영장 등 4개소), 서구(마재근린공원), 남구(광주사직공원 등 4개소), 북구(양산호수공원 등 8개소), 광산구(쌍암공원 등 3개소)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목은 생활체조, 에어로빅, 라인댄스, 탁권 등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종목이며, 장소별 전담 지도자가 이달부터 11월까지 1일 1시간 주 3~6회 운영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